

취하는 술잔

2010년 12월 1일

본문 말씀: 예레미야 25:27-29

(렘 25:26, 개역)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렘 25:27, 개역)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렘 25:28, 개역)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렘 25:29, 개역)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사람들은 신을 찾을 때만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다루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세계 밖에 모릅니다. 밖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행복하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입니다.

마치 큰 유람선 배에 수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여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뽐내고 자신들의 여행 재미에 몰두해도 이 많은 사람들은 운명은 배의 운명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 할 때, 그들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그들은 물 속으로 다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서로 옆의 사람을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인생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하고 판정을 내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탁자에 마주앉는 사람들이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모양새로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제 이 나라는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와 유사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탄 배를 뒤엎으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하지만 예수님께서 뱃전에서 한가로이 주무십니다.

다급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새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풍랑이 일기 전에, 곧 자신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즉 자기 기준에 맞추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세계로 포섭하듯이 믿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사람들의 편익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안겨주셔서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키는 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심판 때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는 식으로 살았던 세월을 청산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박국 2:2-4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묵시의 때가 오면 역사는 부정당하게 마련입니다. 묵시란 종말을 부르는 계시를 뜻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이 있었습니다. 1,2,3,4,5,6, 그리고 7입니다. 8,9,10, ∞(무한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시란 곧 미래에서 현재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이란 1,2,3,4,5,6 이라는 역사의 힘으로 버티는 아니된다 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심판하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도시는 역사적 도시로서 줄 곧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소식으로 인하여 그 도시는 ‘끝’이 나버린 도시임이 밝혀집니다. 물론 롯에게만 그러합니다.

롯은 천사가 일어준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미래에서 이끄는 힘으로 사는 자는 과거에서 끌어 당기는 힘에 눈질을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에 미련이 많습니다. 과거에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과 그 역사에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해서 “미워도 다시 한번”라는 식입니다.

다시 과거를 표준삼아 승부를 보겠다는 식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악마가 지배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14-15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 자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획득했다는 그 성과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직위나 신분 일 수도 있고 혹은 명예와 위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과거의 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악마가 주는 공포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에서는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바로 목사의 약속의 믿으라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애쓴 덕분에 구원받는 아님 마지막 때에 주시마하시는 그 메시아의 공로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변화를 자기에게 가해도 다 의미없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박국 3:17-18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연연하면 자꾸만 오무려듭니다. 여전히 최후의 자기 것을 간직하려고 하다보면 점점 죽기를 무서워해서 악마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놔주어야 합니다. 과거로 눈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래에 서서 끌어당기시는 예수님의 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비로소 즐겁게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겠다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8강-렘25장27-29취하는술잔-jer101201.mp3>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8강-렘25장27-29취하는술잔-jer101201.avi>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8강-렘25장27-29취하는술잔-jer101201.hwp>

<http://media.woorich.net/성경강해/예레미야-2009/088강-렘25장27-29취하는술잔-jer101201.pdf>

088강-렘 25장27-29(취하는 술잔)-jer101201-(이 근호목사)

2010-12-02 12:42:53 녹취 : 오용익

088강-렘 25장27-29(취하는 술잔)-jer101201-(이 근호목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27-29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상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되는 것, 내가 잘되면 그만이지요. 나만 행복하면 그것으로 세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되면 세상 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개인적이고 자기위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인데 우리의 뜻은 오직 코앞에 있는 자기 일밖에 모르니까 그것이 의견일치가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옆 사람 기도하는 것과 내 기도가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옆 사람 기도도 듣지 않고 내기도도 듣지 않고 누구의 기도도 듣지 않고 전체를 일괄해서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수천 명이 타고 가는 큰 배인데 그 배에 탄 한 사람 한 사람이 빙산에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각자 자기 개성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카지노에 있고 어떤 사람은 카바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침실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갑판에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밴드멤버로 연주하고, 각자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빙산에 쿵, 하고 부딪히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다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배가 기울어지니까 모두 다 자기개성이나 학력 인물 직업과 상관없이 중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썩 쏠리면서 차가운 바닷물에 다 빠지지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상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이타닉침몰 하듯이.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누가 잘났느냐, 누가 못났느냐,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소소한 경쟁 같은 것은 다 묵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괄해서 움직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란 것은 구조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 말고 일방적으로 외부질서에 의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사실,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인간이 보기에는 자연현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지만 성경만 딱 가져다 대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요.

본문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식탁 맞은편에 앉아서 술잔을 하나 건네면서 ‘마시라. 그리고 취하고 토하고 엎어지고 망해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짜 맞춰서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어떤 인물이 계셔서 그 분이 강제로 지시함으로써 움직이는 식으로 세상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바다를 건너올 때 배가 뒤집어질 뻔 했지요. 그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때 함께 배에 타서 주무시던 그 예수님하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 예수님하고 너무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함께 식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때는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라고 여겼는데 사람이 아무리 용 써도 해결 못하는 그 점에 대해서 주님이 개입해서 나서니까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의 작전에 말려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바람과 바다가 주의 나무람에 의해서 잔잔해졌다면 왜 주님은 바람과 바다가 제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할 때 자진해서 그것을 말리지를 않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주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예수님 본인에 대한 생각이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점을 의도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주님께서는 풍랑일 때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수정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무겁게 보라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것 같으면 그렇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과 대화해서 제자들의 소원이거나 들어주자는 것이 아니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제자들이 동승한 겁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한 운명이 돼서 예수님의 노선에 합류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제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도록 동참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들이 바로 세례 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적으로 생각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원대한 그 계획에 합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하나의 일원이 되지요. 이걸 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시는 데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겼고 예수님을 나와 같은 인간수준으로 믿었다면 수정이 필요하지요.

그 수정에 필요한 작업이 뭐냐, 바로 심판입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역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람이 사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벌여놓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벌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내 것을 어느 정도까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우리의 손으로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지요.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에게 그리고 신약의 성도에게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보는 노선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지요.

그럴 때 동원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소식이고 멸망의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 날이 오게 되면 현재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찌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되게 하는 것은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 이것은 이번 겨울수련회에 이야기할 것인데 제가 미리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1, 2, 3, 4, 5, 6, 7,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8, 9, 10 ……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7로 끝난다는 겁니다.

1부터 7까지 모든 것이 마감이 돼요. 내일 하나교회에서 할 강의내용이 그것인데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1, 2, 3, 4, 5, 6, 7로 끝나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에 가서야 진정 우는 자와 진정 구원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정답은 끝에서 가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은 2에 밀리고 2는 3에 대해서 양보해야 되고 3은 4에 기대야 되고 4는 5에게 미뤄야 되고 5는 6에게 6은 7에게, 이 말은 결국 뒤에서, 미래에서 잡아당기고 당기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데 인간의 기억은 7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어왔던 1, 2, 3, 4를 생각해요. 그러면 미련이 많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무런 감동이 안 되십니까? 다시 한 번 해야

될 그 내용이 뭘니까? 이미 겪어 왔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우리는 미래에서 당기는 힘보다도 내가 겪어 왔던 그 과거의 낭만적인 것에 승부내고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종말과 심판이야기를 안했더라면 그들이 1, 3, 4, 5, 6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들은 매일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일상 속에서 다른 동네나 이 동네나 똑같이 사람 살만한 동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롯에게만 마지막 끝을 이야기해 줬지요. 끝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장 보는 약속이에요. 모든 약속은 끝장을 보지 않는 약속은 없습니다. 모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끝장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끝장 참 잘 내셨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이 세상을 끝장 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깁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1, 2, 3, 4, 5, 6에, 인간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에 연연하면 안돼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평도에 포탄 떨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내 몸이 아픈 일도 있고 사업 망해서 부도난 것도 거기 있고 가족 특히 자녀들에게 우환이 생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회 이단들이 설쳐대면서 돈만 빼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온갖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1, 3, 4, 5, 6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역사에 미련을 갖고 역사에 안달을 내느냐 하면 그것은 ‘내 것’이기에 그래요. 그런데 7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안산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뭐가 유행이나 하면, 예언자가 등장했대요.

예언자가 등장해서 곧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교회 마다. 목사들은 그것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안 그래도 화끈하고 자극적인 뭐가 없나 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자가 등장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때가 마지막이다, 회개하자, 하는 식으로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끌어 모을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그런 예언자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너무나 잘 맞춘다는 거예요. 아주 용하대요. 그런데 그 용한 선지자가 하는 말이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참 용한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답변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공포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한 번 보세요.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교회 나오고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믿지만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이면 그 내 것을 어디에 보존할 겁니까? 미국 이민을 갈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라도 갈 겁니까? 금으로 바꿔놓을 것인가요, 달러로 바꿔놓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본문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이 악마는 거짓선지자, 자기 종들을 보내서 어찌되었든지 죽기 무서워서 종노릇 하는 것을 더욱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그냥 우리 노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노동으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가진 것에 그것을 섞어 넣으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그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1, 2, 3, 4, 5, 6이 아니고 7이 되는 그 시점에 도착해서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끝이끝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지요. 특히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이 더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하박국 3장 끝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요새 안동 난리가 났지요. 다 도살해서 외양간에 소가 없지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목시가 나오고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라, 취하라, 심판받아라, 종말이다 하는 것은 너는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을 종말로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점이 좋으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줘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노래방 하다가 때려치우고 직업 바꾸고 새장가 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1, 2, 3, 4, 5, 6에 해당되기 때문에.

7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모든 것은 내가 좀 편해볼까 하는, 여전히 자기의 소유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병원 8510호인가, 거기에 전에 우리교회 나오셨던 김 ○성 집사님의 친구 분이 암에 걸려서 온몸에 전이된 채로 누워 있습니다.

그 분이 하는 말이 노래방을 했는데 밤낮이 바뀐 채 일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평소에 몸도 안 좋은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변화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엘리야 안 되시렵니까?’ 했어요. 철없는 열두 제자 말고 모세나 엘리야. 그것마저 세상 것인 것을, 그것마저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 가두어두려는 하나의 술책이었던 것을. 거기에 우리가 얼씨구나, 좋아 하면서 말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오므라드는 겁니다. 오므라들면서 우리를 가둬두는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고 짜버려 들어요. 아주 작아요. 나중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뭘 해도 실패니까. 이래도 실패, 저래도 실패, 누굴 만나도 실패, 바짝 오므라들어서 팔을 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있는 것이라도 유지해야지!’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만 쥐고 있는 셈인데 공기도 주님 것인데. 활짝 펴고 살아야 되는데, 활짝 펴고! ‘내 남편 죽었다!’ 이렇게 활짝 펴고! ‘나 두 번 이혼했다!’ 활짝 펴고! 왜 그걸 못하느냐 말이지요. ‘나는 창녀였다.’ 왜 활짝 펴지를 못합니까? ‘난 기생이었다.’ 기생 라합처럼!

왜 활짝 펴지를 못합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아직도 쥐고 있으니까 마귀가 덮쳐서 쥐고 있는 인간을 더욱더 위에서 덮쳐버리니까 그게 무서워서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 숨도 못 쉬어요. 또 뭘 하면 일을 망칠까 싶어서. 무화과의 소출이 열 개 나다가 다섯 개 나다가 세 개 나다가……, 나중에는 무화과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께서 종말을 주신다는 고마움, 이 세상을 끝장내는 고마움,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당부의 말씀과 즐거움과 고마움, 감사,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죄한 것이 아니고 의인된다고 했잖아요. 죄 없는 상태는 무죄상태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된 통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서 구원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말이 그냥 끝장만 나는 종말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성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요구했느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이 사랑받고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대신 희생하는 희생제물, 흠 없는 소, 염소, 양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희생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다고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망하는 판국에 그냥 그 망하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신약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재앙이 지구상에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나와요. ‘마귀가 택한 백성이라도 후려서 지옥 보내려고 할 그 때에 너희들은 이 예수,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지요. 사랑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그런 상투적인 말을 빼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자기미움, 자기부인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꿈을 꾸는 이유, 그것은 다 당신 때문이에요.’ 여기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 안했지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지금 더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더 바라면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죄짓는 놈입니다.’ 할 때 이것이 자기부인이라는 말이지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다 너 때문이야.’ ‘시월의 어느 기쁜 날’인가? 노래 가사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당신만 퍽 하니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당신만 쳐다보면 나는 정신이 나서 당신 있음에 내가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를 잊어버려요. ‘여기 좋사오니.’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 못한 채 그저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자기 손으로 붙잡으려고 한 그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를 잊어버려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지요. 사도바울이 삼층 천에 올라갈 때 ‘내가 어디에 있지?’ 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너무 좋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며칠 동안 있었는지를 몰라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챙겨먹었습니까, 물을 마셨습니까? 40일 동안 물 한 방울 안마셨어요. 그냥 그 자체로 좋았습니다.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가보세요. 바람만 휙휙 불니다. 주님께서 성령이라는 사건을 줄때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다가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오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직업으로 바꾸었으며 어떤 남편, 어떤 아내와 살았는지, 남편을 여섯 명 혹은 일곱 명을 바꿨는지 관계없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너는 구원받는 거야.’라는 것이 박하사탕처럼 화,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박하사탕>영화에서처럼 ‘나 돌아갈래!’ 하지 말고요. 그냥 박하사탕의 향기처럼 화,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허브 향처럼 온 몸에 퍼져서 너무 느낌이 화해서 어디가 코인지 어디가 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종말을 주든지 불 심판을 주든지 ‘참 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 내 힘으로 애지중지 하면서 나의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 자식이든 남편이든 직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울무로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이 세상을 허무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었고 우울증을 유발시키면서 절망케 했던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없앨 수 없는 이것을 주님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뜻대로 말끔하게 없애
줘서 진짜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뿐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했습니다. 당신은 나 잘되라고 있는 존
재라고 으박지르면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 흘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
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그저 죄송하고 송구하고 고맙고 감
사하고 '오늘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약속이 우리들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